

체육기자 이길용으로 광복을 기억하다



정영재

중앙SUNDAY 문화스포츠에디터
스포츠 역사,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
jerry@joongang.co.kr

매년 1월, 전국의 스포츠 기자들이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 모이는 날이 있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이 주관하는 ‘체육기자의 밤’이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이길용체육기자상’ 시상식이다. 이길용은 1922년부터 기자로 활동하며 체육 발전의 과정을 기록해 조선 체육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우고 전국에 기사를 배포한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인공이다. 이길용의 기자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9년 제정된 이 상은 모든 체육기자들이 받고 싶어 하는 영예로운 훈장과도 같다.

필자도 2013년 제 23회 이길용체육기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2012 런던 올림픽 당시 중앙일보 스포츠부장이었던 필자는 ‘올림픽은 스토리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올림픽 메달리스트, 국제심판, 스포츠 재활 의사, 스포츠자료 수집가, 체육철학자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올림픽 스토리메이커’를 구성했다. 단순 경기 보도를 넘어서 스토리의 보고(寶庫)인 올림픽에서 다양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발굴·보도했고 그 공적을 인정받아 큰 상을 받았다.

2023년 8월 제 78회 광복절을 맞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스포츠박물관에서 체육기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길용의 유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스포츠박물관은 부친의 대를 이어 스포츠기자로 활동한 아들 이태영 선생으로부터 기증받은 33점을 포함해 총 303점의 유물을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길용은 1990년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아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복절에 맞춰 이길용 유품을 공개하며 ‘체육기자 이길용으로 광복을 기억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도 기자이면서 동시에 일제 치하에서 여섯 차례나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로서 이길용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원고를 청탁받고 필자는 이태영 선생(대한체육회 고문)을 따로 만났다. 중앙일보 체육부 선배이기도 한 이 선생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각종 자료와 원고를 건네주면서 “체육기자이자 행정가, 독립운동가로서 부친의 면모가 입체적으로 조명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선생의 증



이길용 기자가 생전에 기록한 신문 기사(동아일보 1933년 5월 30일자)와 압록강 빙상대회 취재 당시 이길용 기자의 모습

© 국민체육진흥공단

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길용의 진면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일장기 말소는 ‘손기정’ 이전에도 있었다 ●

다음은 동아일보 1984년 8월 16일자 ‘특파원 보고’ 코너에 정구종 동경특파원이 쓴 〈“東亞日報「日章旗 말소」 두번했다”〉 기사의 일부다.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사건이 발생한 것은 **孫 선수의 마라톤 우승 후 16일째인 1936년 8월 25**

일이였다. 체육부 주임기자 **李吉用**(당시 37세)은 일본으로부터 우송된 「아사히 그래프」의 마라톤 표창식 사진에서 **孫 선수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보고 분개, 총독부의 검열을 피해 이 일장기를 지워버릴 궁리를 했다.**

이길용은 동아의 전속화가 이상범에게 『일장기를 흐리게 해버리면 어떨까』라고 상의했다. 이상범은 『흐리기보다 아예 없애버리자』고 적극 응했다. 흥미깊은 점은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는 이 때가 처음이 아니고 4년 전 김은배 선수가 「로스 앤젤레스」 올림픽에서 6위 입상했을 때도 기술적

으로 일장기를 말소했다는 사실이 「東亞日報史」에 기록돼 있었던 것.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의 동아일보 지면을 뒤져 조사한 결과 확실히 **金 선수의 각종 사진에는 문제의 일장기가 없었다.**”

1932년 8월 LA 올림픽 당시 ‘김은배 일장기 말소’는 일제가 알아채지 못해 그냥 넘어갔던 거다. 따라서 이길용이 1936년 ‘손기정 일장기 말소’를 감행한 것은 단순한 반일감정이나 욕 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일장기 말소로 이길용과 함께 총 8명의 동아일보 기자가 경기도경찰부에 체포되었고, 주모자로 지목된 이길용과 신낙균 등 5명은 40여 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한 끝에 ‘이후 언론기관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강제로 서명한 뒤 석방됐다. 이것이 이길용의 두 번째 투옥이었다.

이길용은 일제에 의해 여섯 번이나 옥고를 치렀다. 이는 그가 뻗속 깊이 ‘항일 투쟁, 독립운동가’임을 증명한다. 이태영 선생이 정리한 기록에서 이길용의 투옥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19(20세) 상해임시정부의 문서 및 전단수송 중 피검, 1차 투옥
- 1936(37세)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모자로 투옥
- 1939(40세) 공공집회에서 반일가요를 부른 사건으로 투옥(3차)
- 1942(43세) 성북동장 시절 조기회(朝起會) 결성으로 투옥(4차)
- 1943(44세) 일제의 창씨개명 시책에 불응 연행 투옥(5차)

- 1945(46세) 반일발언으로 투옥(6차)

이처럼 이길용은 1919년 기미독립운동 당시부터 1945년 광복 직전까지, 끈질기고도 다양하게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투사였다. 이런 점에서 ‘이길용으로 광복을 기억한다’는 논지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 이길용은 체육기자, 행정가, 역사가였다 ●

이길용은 1899년 음력 8월 15일 경상남도 창원부(현 창원시)에서 상업에 종사하던 아버지 이치상(李致相)과 어머니 이복순(李福順)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후 아버지와 함께 경기도 부평군(현 인천광역시 부평구)으로 이주했다.

사립 인천영화학교(현 영화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배재학당을 졸업한 후 일본 도시샤(東志社) 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년을 수료했으나 집안 사정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1918년 귀국했다.

그는 1919년 3.1 운동 직전 상해임시정부에서 인쇄한 비밀문서를 수송하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됐다. 또 1920년 12월에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정치범죄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길용은 형무소에서 알게 된 송진우 등 민족지도자들의 권고로 출옥 후 1922년 동아일보사에 입사함으로써 언론계에 투신했다. 동아일보 사회부에서 체육 기사를 담당하던 이 기자는 1924년 조선일보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곧 동아일보로 복귀했다. 이 기자는 신문에서 운동부를 신설하는 등 체육중흥 바람이 일던 1920년대 말부터 체육기사의 패턴을 정형화시키

1) 동아일보, 1984년 8월 16일자



며 체육기자로써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특히 이 기자는 기자 생활 동안 기사스크랩을 비롯해 방대한 양의 체육관련 자료들을 모았는데 우리나라 근대 체육사는 거의 그 자료를 토대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8년 연합신문이 펴 낸 ‘체육대감’(體育大鑑)이 바로 이 기자가 모은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그는 기자로서 뿐 아니라 체육단체에 직접 참여하는 등 체육보급에도 크게 기여했다. 용어 제정은 물론 전조선여자정구대회, 조선스키연맹을 창설하는 등 체육사업에 앞장섰다. 해방 이전 그가 이사로 참여한 체육단체는 조선체육회를 비롯 야구 정구 육상 빙상 권투 등 10여개에 이른다. 특히 고려육상구락부와 백구활빙구락부를 통해 젊은이들을 운동으로 단련시키며 만주, 일본과의 대항전에 내보내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는데 힘썼다.²⁾

이처럼 이길용은 뛰어난 체육기자였을 뿐만 아니라 체육행정가로서 한국 체육의 토대를 닦은 선구자였다. 뿐만 아니라 꼼꼼한 기록과 자료 수집을 통해 한국 체육사를 기록한 역사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남북된 이길용, 아직 생사도 확인 못해 ●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지인들이 피난을 권했는데도 이길용은 “민족에 죄 지은 게 없다”며 거부했다. 그리고 그해 7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 인근 길에서 피납됐다.

이태영 선생은 부친의 납북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이 점령된 직후 아버지가 북한군에 연행됐다가 곧 풀려나와서 가족들이 모두 안심했다. 그러다가 7월 17일경 갑자기 집 근처에서 북한 정치보위부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를 붙잡아갔다.” 이 선생은 “북측이 항일투사인 아버지를 체제 선전에 이용하려고 납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이길용을 서대문형무소에 임시 수감했던 것은 확인됐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평양까지 끌려갔다가 탈출한 황신덕 중앙여중고 창립자(작고)에게서 “서대문형무소에서 북측으로 떠날 때는 같이 있었는데 평양에 도착해 보니 안 보이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

이태영 선생은 기자 재직 시절 아버지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는 “1990년 남북통일축구 행사 때 북한을 방문했던 정동성 체육부장관에게 부탁해 아버지 소식을 알아봤지만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선생은 필자와 만나 “부친이 6·25 발발 3년 전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남북분단의 현장을 돌아본 38선 르포 기사를 뒤늦게 찾아냈다”며 원고를 전해주었다. 아래는 ‘단장(斷腸)의 38선, 비애의 교향곡’이라는 제하의 기사내용 일부다.

엄동설한은 무섭게 닥쳐오건만 아직도 풀릴 줄 모르는 38선 철의 장막은 피로 물든 채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원한의 38선을 좀 더 똑바르게, 속속들이 훑어보며 남북으로 갈라진 동포들의 실상을 살피기 위해 서쪽 분계선, 개

2) 신문과방송 237호, 1990.09

성으로부터 웅진(襄津) 대안의 팔학(八鶴)까지 돌아보았다. 3월이라 3짚날 기어 들어갔다가 9월 9일에 되돌아가는 제비도 이 하늘의 창공을 자유로이 날건만 원수의 38선 남북의 글월을 미소(美蘇) 양군의 입회 아래 주고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가슴 아플 뿐이다.

개성(開城)은 송악산(松嶽山) 중턱부터 38선이라 서쪽으로 12km, 동쪽으로 3km, 모두 40여리를 접하고 있는데 그중 가까운 곳은 불과 400m 사이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이곳 수용소의 수용능력은 3,500명으로 그동안 이 수용소를 통하여 이남 땅에 퍼진 이가 7만명에 이르는데 많을 때는 1천 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피난민 생활의 비극도 그러하려니와 가족 해산을 겪는 아픔을 어떻게 필설로 표현하리오.

그 비극의 한 토막.

모자가 함께 월경하다가 보안대에 들켜서 도망하는 사이에 걸음 느린 어머니는 잡혀가고 13살짜리 아들만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울며 또 울며 몸부림치는 비극에 눈물이 옷을 적셔 눈을 감아야 했다.

38선에서 가장 위험한 지대로 알려진 여한에 이르자 다섯자 길이의 검은 말뚝이 눈에 띈다. 남쪽으로는 영어로, 북쪽으로는 러시아 글로 적혀 있다. 이것이 반만년 기나긴 세월에 걸쳐 배달혈통을 이어온 우리 겨레, 이 삼천리강산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38선 패목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통한의 슬픔에 몸서리 쳐진다.

틀림없는 우리 강산, 붉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우리 땅이건만 어찌하여 저쪽은 붉다하고 이쪽더러 희다고 하는고. 소련병사 몇 명이 빨래 널린 막사 앞을 거닐며 이쪽을 노려본다. 우러러 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 잠긴 터에 하늘마저 애처로운 듯 흐려지니 우로(雨露)의 은택에 고이 자란 같은 겨레의 발길이 끊어짐을 한탄하며 경계를 뛰어 넘어 마주 껴안고 녀두리라도 하고 싶다.(중략)

38선의 새벽은 유난히 음산하고 차다. 서글픈 해주만엔 햇살조차 비껴가는 듯하다. 또 하나 비극의 한 토막. 함경북도 회령(會寧)에 원적을 두고 나남(羅南)에 살고 있는 박정에 여사가 앞서 월남한 가장을 찾아 일곱 살 난 아들을 등에 업고 붓집은 머리에 인 채 달 밝은 밤을 틈타서 해안으로 월경하여 팔학 마을에 다달은 것이 26일 새벽. 주막을 찾아 등에 업은 아들을 내려놓고 보니 어린 것이 해안추위를 이기지 못해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오-죄없는 어린 혼이여. 운명하기 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얼마나 신음하였으랴. 모진 바람, 바다 물결소리에 이런 비극도 모르고 남쪽으로 바쁜 발걸음을 달렸으니 어머니의 그 애통함을 어이 하리.

해주(海州)는 소래포에서 바로 바라보인다.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 별판에 소련 전투기 상당수가 정렬해 있다. 그 뒤로 제련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른다. 마치 전쟁의 전주곡(前奏曲)과도 같은 험악한 분위기다. 수양산(首陽山)아 말 물어보자. 해주의 고금(古今)을 네 응당 알지니 예는 그만두고라도 38선으로 갈라진 해주의 슬픈 운명, 고달픈 살림살이에 앞날이 아득하다.³⁾

3) 남북과진실 2013년 가을호



이태영 선생은 부친이 마지막 남긴 기사에 대해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예감하는 예리한 관찰에 감탄을 금할 길 없다. 그리고 순교자 정신과도 같은 기자 정신에 엄숙함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그는 6·25 남북인사가족회 이사를 맡아 남북자 진상 규명과 귀환 운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딱 막힌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안타까움만 커지고 있다.

남북자들의 생사라도 확인된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유해라도 송환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선생의 한 맺힌 소원이 이뤄진다면 ‘체육기자 이길용으로 광복을 기억하다’는 명제는 비로소 완결될 것이다.



이길용 기자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시상식 당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운 뒤 내보낸 사진과 기사

© 손기정기념관